

# 政治勢力 간 통일전선 측면에서 본 제1차 國共合作의 고찰

-코민테른 · 중국공산당 · 국민당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 준 태

경희대학교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코민테른의 구상과 활동   | 참고문헌     |
| III. 國共合作 前 兩黨의 관계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 국민당(Kuomintang, KMT), 코민테른(Comintern), 제1차 국공합작(the 1st United Front of KMT and CCP), 통일전선(United Front), 손문(SunWen), 진독수(Chen Duxiu)

### 국 문 요 약

‘제1차 국공합작’의 완성은 협력의 당사자인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두 정치 집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던 코민테른 즉 소련과의 삼각관계에 내재한 현실적 이해를 통일전선의 틀로 이루어낸 것이다. 통일전선이 갖는 사전적 의미 즉 현실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합’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서 국공합작을 비추어 보면, 먼저 국민당은 反 軍閥 세력을 결집하여 국민혁명의 완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명분상으로는 국민당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도 견고하지 못한 정치적 기반의 확보 즉,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세력 확장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코민테른 즉 소련은 중국의 혁명을 지원하여 세계혁명의 수출 즉 그들의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포위와 공격을 완화시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킬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벌 완성 후 전개되었던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소련과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합작의 현실적 이유로 인해 충분히 예견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 I. 서론

辛亥革命 후 황제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공화 체제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군벌 활거와 헌정과피 등으로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주의 열강을 축출코자 손문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은 국민혁명의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국민혁명 실현의 가장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과 대만 양 지역 모두 입장과 견해는 다르지만, 이미 많은 국공합작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는데, 대륙의 경우 국공합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공 정권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한 중국 혁명사, 중국공산당사의 일부로서 또는 국내혁명전쟁사로서 파악하고 중국 공산당 만이 국민혁명을 이끌어 간 측면을 강조하거나 국공합작의 성립과 분열과정 또는 국공합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과 주요지역의 노동운동과 관련한 주제들이 관심대상이었다.<sup>1)</sup> 또한 국공 양당의 가장 중심인물인 손문과 진독수의 당내 외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공합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코민테른과 두 인물의 개별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sup>2)</sup>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 결과인 국공합작이 미친 영향이나 결과적 측면 보다는 1920년대 초 정치세력으로서 反 軍閥 입장에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제휴를 ‘통일전선’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전선’이란 ‘계급사회 중 한 개 내지 몇 개의 계급, 계층, 집단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연맹’ 내지 ‘각기 다른 사회세력(계급, 계층, 집단, 당파, 민족, 국가 등)이 일정한 역사조건 하에서 공동 목표를 위해 결성한 정치연맹이 연합행동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일전선이 같은 사전적 의미 즉 현실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합’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서 국공합작을 비추어 보면, 분명 기존의 평가와는 조금 다른 형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차 국공합작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 당시 주요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국민혁명의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만큼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의 후견 역할을 하면서 일면 국민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혁명에 관여하려던 코민테른이 또 한 개의 정치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고에서 살펴보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들 세 집단들은 국민혁명의 완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후의 역사 과정으로 인해 평가되어 지는 것처럼 당시의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은 서로에게 얼마나 적대적 상황이었나 하는 점도 국공합작의 필요성

---

1) 대륙의 경우 중국현대사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공정권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한 중국혁명사, 중국 공산당사의 일부로서 또는 제1차 국내혁명전쟁사로서 파악하고 공산당만이 국민혁명을 영도해 간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국공합작의 성립과 분열과정, 국공합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 있음. 羅弦洙, 「第1次 國共合作과 北伐」, 『講座 中國史VIII』, 지식산업사, 1997 참조.

2) 孫文과 陳獨秀가 국공합작을 위해 코민테른 및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 상호 작용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곧잘 이루어져 왔으나, 『孫文全集』이나 『獨秀文存』 등과 같은 두 사람의 문집 등에서 서로의 관계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장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국민혁명의 참가자들도 결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련의 현실 정치세력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및 방향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공조 내지는 협력은 현실 정치에서의 정치적 타협에 비교될 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정치세력들 간의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협력 요인들을 살펴보면 각 세력들이 국공합작에 대한 志向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공합작 실현의 현실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코민테른의 구상과 활동

### 1. 中國에서의 통일전선 전략수립

러시아 10월 혁명 후 레닌은 동방각국 특히 중국의 民族革命運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國際 反帝國主義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했으므로 세계를 압박민족과 피압박민족을 구분하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혁명 이론을 제기하고 서방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로 하여금 동방의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도록 호소하였다.

1920년 6월 레닌은 코민테른 제2차 대표대회에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테제(초고)」를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코민테른은 식민지 및 낙후한 나라들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와 임시적 동맹을 맺되 그것과 융합해서는 안되며 가장 맹아적인 형태에 있어서까지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독자성을 무조건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sup>3)</sup> 이러한 레닌의 테제는 코민테른의 동방의 혁명 지도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으로 통일전선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하였다.<sup>4)</sup>

레닌은 이 회의에서 주석과 식민지사무위원회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이후 민족과 식민지 사업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레닌은 보이틴스키와 마링을 코민테른의 대표로 하여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공산당을 돕는 한편 중국에서의 민주혁명통일전선의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하였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통일전선은 레닌의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현실화 시켜졌다. 중국공산당은 당 二大 후 코민테른에 가입하였고, 이후 그 지부로서, 코민테른의 국공합작과 관련한 지시 사항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혁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3) 『列寧選集』, 第31卷, 人民出版社, 北京, 1963, p. 124~130. 레닌의 테제는 모두 12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중국당 「一大」의 결의 중 ‘기타정당에 대한 태도’의 내용으로 보아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나 1년 뒤 二大에서의 「민주적 연합전선의 결의」에서는 적극적인 통일전선의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一大과 二大 사이에 코민테른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코민테른이나 소련이 이처럼 대중국정책에 정성을 쏟은 데에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다. 코민테른이나 소련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나 세계혁명을 지원하는 활동만을 전개한 것 이라기보다는 소련의 이익을 위해, 소련의 지도하에 소련의 의도에 부합되게 활동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해왔다. 특히 대 중국정책에서 소련이나 코민테른은 항상 양면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해왔다. 소련은 중국의 북방 군벌들과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지속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방의 손문 정권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중국공산당을 장악하고 지도해오다가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소련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자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부속시키는 國共合作의 모색하게 되었다.<sup>5)</sup>

소련은 유린, 파이크스, 요페 등을 차례로 북경정부에 파견하여 외교관계 개선의 교섭을 전담시키다가 여의치 않자 남방의 손문과 연합하여 ‘손문-요페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하고 북경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했으며, 북경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다시 소련 외교의 대가인 카라한을 북방정부에 파견하여 북방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실현하고, 다시 남방의 손문에게는 보르딘과 블뤼처(Vassily K. Blycher)를 파견,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중국공산당에는 보이틴스키, 마링등을 계속 파견, 당을 지도하는 3개의 얼굴을 가지고 중국을 요리했다.

이처럼 소련은 중국대륙에서 실권이 강한 정부와의 접근을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포위와 공격을 완화시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킬 시간을 얻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련은 이념을 뒤로 밀쳐두고, 소련의 이익에 위배된다면 아무리 명분과 현실에 부합되는 일이라 해도 타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 2. 中國 內 諸勢力에 대한 평가와 관계

당시 중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하에서 民主革命 統一戰線을 수립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이제 막 탄생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레닌이 제기한 植民地 反 植民地 國家의 공산당이 민주 혁명적 자산계급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정책 방향이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sup>6)</sup> 그리고 코민테른 대표단들의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은 군벌이든 국민당이든 접촉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군벌 중에서도 당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5) 코민테른의 전술은 러시아혁명을 에워싼 여러 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적극화 되었는데 1921년 3월 러시아는 제10회 당 대회에서 신경제정책(NEP : Novaja Ekonomicheskaja Politika)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러시아 국내정책에 있어서도 유연한 노농 동맹 론을 채택했다. 그리고 서유럽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의 퇴조는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후퇴적 전술을 Tm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고, 같은 해 6~7월의 코민테른 제3차 대회는 후퇴기 전술에서 사회주의민주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방침을 검토하고 12월 코민테른의 ‘통일전선에 관한 전술’을 구체화시켰다. (宇野重昭, 김정화 譯, 『中國共產黨史』, 일월서각, 1984, p. 42참조.)

6) 蕭姓·姜華宣, 「第一次國共合作統一戰線的形成」, 『中共黨史研究論文集』 上冊, 379. (原載 『歷史研究』 1981年 二期)

오패부와 광동의 진형명과의 관계 모색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 가. 陳炯明과 吳佩孚

초기 소련을 대표하여 중국 북방정부와 교섭을 담당한 사람은 極東共和國의 유린(Ignatius L. Yourin)이었다.<sup>7)</sup> 유린은 極東共和國의 외교가로서 10월 혁명 이전부터 비밀리에 혁명에 참가하였고, 10월 혁명 후에는 소련 홍군의 시베리아 진군에 참여했었다. 그는 극동공화국 수립에 종사하면서 대중국외교에 전념했다. 1920년 6월 유린은 외몽고를 통해 북경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당시 皖系軍閥 段祺瑞가 이끌던 親日성향의 북경정부는 제국주의의 눈치를 보느라고 극동공화국에 정식국가로서의 자격을 주지도 않았고, 유린에게 사절단으로서의 입국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直系인 吳佩孚가 奉系 張作霖과 연합하여 북경으로 진주함에 따라 段祺瑞정권이 물러나고 吳佩孚정권이 들어서자 1920년 8월 3일 유린사절단은 북경정부의 동의를 얻어 북경으로 들어왔다.<sup>8)</sup>

直系 군벌 오패부는 5.4운동 이후 북방의 실력자로 등장하였는데, 그는 段祺瑞와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일약 ‘愛國將軍’의 호칭을 듣게 되었다. 아울러 그는 민심을 모으기 위하여 ‘保護勞工’을 외치며 ‘開明軍閥’로 인식되어 졌다. 당시 소련의 극동공화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북경군벌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 이었는데 보다 진전된 중국관계를 위해 코민테른 극동국과 극동공화국은 1920년부터 1921년까지 吳佩孚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였다.<sup>9)</sup>

당시 코민테른과 극동공화국은 吳佩孚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중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합작하여야할 인물은 吳佩孚이지 손중산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sup>10)</sup> 1920년 4월 코민테른 최초의 대표인 보이틴스키도 그해 10월 오패부의 幕僚인 白堅武를 만나 중국의 정국에 대해 토론하고 소련의 정황을 소개하는 한편 오패부와 연합하여 민주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sup>11)</sup>

包惠僧의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회 전후의 回顧에 의하면 보이틴스키는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오패부와 연합하여 민주운동을 일으킬 것을 주장했고, 마링도 그의 회고에서 극동공화국이 ‘중국의 민족주의 운동을 위해서 합작할 수 있는 인물은 吳佩孚’라고 말했다.<sup>12)</sup>

당시 소련정부의 극동문제 전문가인 빌렌스키도 오패부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다. 즉 코민테른 제2차 대표대회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자와의 단결’을 결정하자 1920년 10월 9일 그는 ‘消息

7) 유린은 표면상 극동공화국 대표로 商務에 대한 회담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을 대표하여 회담에 임해왔다.

8) 向青·石志夫·劉德喜 主編, 『蘇聯與中國革命』, 中央編譯出版社, 北京, 1994, p. 31.

9) 吳英銑, 「吳佩孚與蘇聯·中共及孫中山的關係」, 『國外中共黨史中國革命史研究譯文集』(第1集), 中共黨史出版社, 北京, 1990, p. 181.

10) 伊羅生(H. R. Isaacs), 「與斯內夫利特談話記錄」,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 (中國現代革命史資料叢刊), 人民出版社, 北京, 1980, p. 23. (斯內夫利特는 마링을 가리킴)

11) 蕭牲·姜華宣, 前揭論文, p.380.

12) 馬林, 「吳佩孚與國民黨」,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 (中國現代革命史資料叢刊), 人民出版社, 北京, 1980, p. 58.

報」에 오패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라고 말했고, 또 ‘소련은 중국에서 오패부장군의 대 소련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1922년 그는 또 ‘오패부는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軍閥’이라고 썼다.<sup>13)</sup>

소련 외교인민위원회·코민테른 극동국·극동공화국의 오패부에 대한 접근정책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어 소련의 극동지역에서의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 북방의李大釗도 낙양에 가서 오패부와 접촉하였는데, 그 결과 1921년 오패부는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입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1922년 중국공산당은 다시 張昆弟, 何孟雄, 등을 교통부 직원으로 파견하여 京漢·京綏·京奉·津浦·正太 등 55개 철도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다.<sup>14)</sup>

한편 광동의 영향력 있는 군벌이었던 진형명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5.4운동이후 스스로가 “사회주의자”이며, “민주혁명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혁명을 찬성하는 레닌을 배운다”고 표방하였다.<sup>15)</sup> 그리고 스스로를 급진적 사회활동가로 미화시키며, 1919년 일찍이 러시아의 10혁명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1920년 4월 러시아로부터 레닌의 특사가 레닌의 친서를 가지고 漳州에 있는 진형명을 방문하였는데, 친서에서 레닌은 진형명에 대해 중국 혁명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1921년 12월 손문을 만나기 위해 남방에 갔던 마링도 진형명에게 3차례에 걸쳐 러시아에서 발생한 국민혁명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당시 러시아 인민외교위원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진형명은 공산주의를 신봉하였고 있으며 그는 혁명적인 의식을 가진 장군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조직 능력과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련과 코민테른은 북경 정부의 오패부 및 광동의 진형명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들 모두를 합작으로 대상으로 삼는 한편으로 같은 시기 코민테른은 보이틴스키를 통해 남방정부의 손문과의 관계 밀착에도 주의했다.

## 나. 孫文과의 접촉

보이틴스키는 중국공산당의 창건을 지도하기 위해 중국에 와서 1920년 가을 陳獨秀의 소개로 상해에서 孫文과 접촉했다. 보이틴스키는 손문에게 불세비키 혁명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주었고, 손문은 광동의 지리적 위치가 소련과의 접촉을 어렵게 한다고 말하고, 滿洲나 블라디보스톡에 강력한 전과기지를 세워 소련과 광주간의 통신을 갖게 할 수 없느냐고 말했고, 보이틴스키는 또 중국 남부에서의 군사적인 승리가 중국 중부·북부의 각성의 혁명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sup>16)</sup>

1920년 10월 소련외교부장 치체린(Chicherin G.U.)은 손문에게 편지를 보냈고 손문도 1921년 8월 28일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해서 치체린에게 서한을 써서 그의

13) 向青·石志夫·劉德喜, 前掲書, p. 57.

14) 同上書

15) 蔡和森, 『中國共產黨史的發展(提綱)』, 『蔡和森的十二編文章』, 人民出版社, 北京, 1980, p. 47.

16) 1925년 3월 15일 소련 『프라우다』지의 제2면에 ‘중국 노동대중의 수령을 애도한다’는 총제목하에 보이틴스키의 ‘나와 손문과의 회견’이란 글을 발표. 向青, 前掲書, p.63 재인용.

신해혁명 이래의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고 치체린이나 기타 모스크바의 벗들에게 개인적 접촉을 요청하며 소련과의 연계를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했다.<sup>17)</sup>

1921년 봄 보이틴스키가 이루크츠크의 코민테른 극동국으로 돌아갔고 그해 6월 마링이 상해에 도착하여 7월 중국공산당을 창립시켰다. 마링은 ‘孫文과의 적극적인 연합’이라는 코민테른의 전략 전환을 가져왔다. 마링의 전략은 손문과 연합하여 북경정부를 반대하자는 것이었고 이는 또 당시 역사적 조건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손문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은 혁명민주주의자로 인정되고 있고, 중국혁명의 실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과의 연합은 중국혁명의 실체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또 吳佩孚와 연합하겠다는 소련의 정책이 난관에 부딪치자 소련의 對中國外交政策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었다.

코민테른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마링은 상해에서 중국국민당 총부와 연계를 맺고 국민당으로 하여금 워싱턴회의를 반대하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극동각국 공산당 및 각 혁명단체대표대회’에 참석토록 유도했다. 1921년 마링은 桂林으로 가서 손문과 회견하고 2주일을 머물며 손문과의 연계를 수립했다. 마링은 손문의 지도하에 있는 군 간부들에게 러시아혁명에 관한 보고를 했고, 손문과는 대중운동과 노동자에 대한 선전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손문은 마링에게 자신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 성향이 짙었고 또 혁명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링의 코민테른 집행국보고서에 손문의 이러한 성향에 대한 보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8)</sup>

마링은 손문과의 회견 후 다시 광주로 나왔고 홍콩에서 일어났던 선원대파업이 손문의 노동운동과 밀접히 연계되었다고 보며 손문에게 높은 평가를 주었다. 마링은 중국 남부여행을 마치고 북경으로 가서 파이크스에게 2편의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를 모스크바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나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국공합작’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련 외교인민위원회에 보내는 것으로 소련 정부가 손문의 남방정부에 사절단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sup>19)</sup>

### 3. 中國共產黨을 통한 統一戰線 戰略

중국공산당이 성립될 무렵 중국공산당은 혁명을 어떻게 전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회의에서 黨綱頌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기타 당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 한 의견은 무산계급은 영원히 기타 정당과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의견은 기타 정당과 합작하여 공동의 적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손문산의 국민당에 대한 평가에서도, 국민당은 북경정부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남북 정부 모두 한

17) 『孫中山全集』上卷, 中華書局香港分局, 香港, 1974, pp.434~436.

18) 「馬林給共產國際執委會的報告」(1922年7月11日),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 p. 17.

19) 同上書, p. 20.

통속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sup>20)</sup> 중국공산당 내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전선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중국공산당 1차 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통과시켰다. 즉 “우리 당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당에 대하여 독립, 공격,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 우리 당은 무산계급의 입장을 견지하며 기타 어떠한 정당과 어떠한 관계 성립도 불허 한다”고 하였다.<sup>21)</sup> 이처럼 당시 중국공산당은 오패부와 진형명 뿐만 아니라 손중산과도 연합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적 연합전선 없이는 민주혁명을 진행을 언급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을 바로 진행하고자 일체의 다른 정파에 대하여 배타적 태도를 취하였다.<sup>22)</sup>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오패부와 진형명과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입장을 표명해야만 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2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코민테른의 한 개의 지부가 되면서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제약과 지시가 가해졌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실은 중국공산당이 오패부와 진형명과 접근하였던 문제는 일종의 합작통일전선일 뿐만 아니라 혁명의 방해세력을 약화시켜 工農運動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이 陳炯明과 접촉한 것은 그가 먼저 제기한 것이며, 진형명은 중국공산당을 이용하여 그의 영향력을 넓혀나갈 생각이었다. 반면 중국 공산당도 그의 도움을 빌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광둥에서 工農運動을 확대시켜 나갈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1920년 진형명은 광둥성장 신분으로 진독수를 초청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또한 1921년 8월에는 중국공산당원인 彭澎을 해풍현 근학소장(후에 교육국장으로 바뀜)으로 초빙하였으며, 해풍현에서 辦農會를 조직하여 감조운동을 시행토록 허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진형명은 광둥공산당 조직의 주요 멤버인 譚平山, 陳公博, 譚植棠 등을 임용하여 『廣東群報』의 편집을 돕도록 하였으며 陳公博을 선진강습소 소장으로 초빙하였다.

그러나 진형명의 反黨事件 사건 후 중국공산당은 즉시 진형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손중산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진형명의 반당행동에 대해 계속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던 譚平山, 陳公博, 譚植棠의 행동에 대해서도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는 엄중한 비판을 가하였다.

한편 오패부는 1922년 직봉전쟁 이후 중국공산당을 이용하여 ‘교통계’를 뿌리 뽑고자 하였는데 ‘교통계’는 오랜 동안 철도관리권을 장악하고 철도 수입으로 군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철도노동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계’를 반대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오패부에게 접근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북경 공산당의 책임자이기도하였던 이대조는 오패부의 세력을 이용하여 ‘교통계’에 대항하고 노동운동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그의 오랜 친구이면서 오패부의 정책처장인 백건무로 하여금 중개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 李達, 「中國共產黨的發起和第一次代表大會經過的回憶」,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版, p. 25.

21)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集』第1卷, 中共中央黨校出版社, p. 8.

22) 一大的決議 내용 중 ‘기타 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국민당과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의 ‘國共合作 前 兩黨的 關係’ 참고.

1922년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오패부와 협상을 벌였는데, 오패부는 이대조 인사가 교통부에 와서 직책을 맡는데 동의하였다. 이 결과 6사람을 파견하였는데 각각 京綏, 京漢, 津浦, 正太, 隴海 등 6개 철로의 비밀조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공작의 용이함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며 같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동운동 정책은 정치상에서도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노동운동을 통해 ‘교통계’를 타파함으로써 노동자가 정치부분의 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방지역의 노동운동은 특히 경한철도의 노동운동은 중국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이처럼 날로 발전하게 되자 오패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노동운동을 진압하게 되는데 바로 2.7참안 사건이다. 중국공산당은 오패부의 이와 같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철저히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오패부운동을 맹렬하게 진행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진형명·오패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당의 손문과도 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은 진형명과 오패부의 정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을 가하였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이나 장차 그들을 어떠한 형태로의 연합전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 Ⅲ. 國共合作 前 兩黨의 관계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정책과 국공양당 관계사를 논의할 때, 종종 中共 一大에서 제정된 ‘현재 있는 각 정당에 대한 태도’의 결의 내용<sup>23)</sup> 때문에 中共 二大에서 ‘民主的 聯合戰線의 決議案’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국공 양당의 관계를 ‘대립’ 또는 ‘배척’의 관계로서 이때에는 아직 통일전선에 대한 아무런 구상이 논의되지 않은 것처럼 단정되어 지는 경우가 있다.<sup>24)</sup> 그러나 中共 一大 前의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 간의 상호 인식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역사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이용되어지는 문헌들(강령, 결의, 선언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sup>25)</sup> 그러므로 초기 당사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당시의 사실에 대한 실제

23) 中共 一大에서 제정된 ‘현재있는 각 정당에 대한 태도’의 내용은 “현재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는 독립·공격·배타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정치투쟁에서 군벌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속에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태도를 반드시 표명해야 할 때에는 본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굳건히 고수해야 하고 기타 당파와 어떠한 관계도 수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中共中央文件選集』第1卷, p. 6~9 참조.)

24) 예를 들면 王功安·毛磊 主編의 『國共兩黨關係史』(武漢出版社)등의 자료가 있다.

25) 中共 一大의 기록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대회 기록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문건도 공포되지 않았다. 董必武도 ‘一大’자체가 어떠한 문자로 된 자료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당시 참석했던 사람의 기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륙에 정권을 수립하고 안정을 찾아 당의 문헌을 정리할 때는 회의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대표들의 기억들도 각기 현재의 입장이 달라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특히 一大 후 많은 대표들이 이념적 갈등과 코민테른과의 마찰로 일찌기 당을 떠나 이들의 회고란 자기중심의 자기 미화의 회고이므로 서로의 기

여부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sup>26)</sup>

본 절에서는 中共 二大 전까지 양당 간 지도부의 혁명 방안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 양당 간의 실제 관계를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 양당의 공통의 혁명 목표가 군벌과 제국주의 타도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공합작이 논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1. 상호 革命觀의 유사성

### (1) 革命的 방향성

손문이 이끄는 국민당은 한 개의 자산 계급 정당으로서 이제 막 형성된 공산당을 적대시 하지는 않았다. 당시 계급과 관련한 陳獨秀의 글을 보면,

“국내 산업의 발전 정도로 볼 때 아직 계급이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 외래로부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들어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sup>27)</sup>

고 하여, 당시의 중국의 사회 및 사상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의 국민당의 성원은 자산계급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자산계급 및 무산계급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손문이 살아있을 당시 국민당은 자산계급의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지는 않았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자산계급 민주주의가 국민당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당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인사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朱執信과 같은 몇몇 국민당의 이론가들은 일찍부터 중국에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들은 과학사회주의와 기타 각종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의식은 자본주의적 착취보다는 사회혁명에 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sup>28)</sup>

손문은 중국의 혁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미의 각국을 고찰한 바 있는 데, 이때 그도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 나라의 사회주의자들과 관계를 가진 바 있다. 그런 결과 그가 주창한 三民主義에도 사회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平均地權’이나 ‘節制資本’ 및 ‘民權革命’과 ‘社會革命’등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sup>29)</sup> 또한 신해혁명 후 상해에서 행한 ‘사회당에 대한 연설’이나 임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후 동맹회 회원들과의 송별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그는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1912년부터 1913년

---

역이 일치될 수가 없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당시 대표중 한사람인 陳公博이 1924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의 석사논문의 부록으로 게재한 一大의 黨綱과 決議가 비교적 정확하였던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蔡熙駿, 코민테른과 創黨大會문헌, 『共產圈研究』 128號(1989년 10월호) 참조).

26) 唐純良, 論中共二大前的國共兩黨關係, 『中共黨史研究』 第12期, 1989年 11月, 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p. 36.

27) 陳獨秀, 「國民黨是什麼」, 『陳獨秀著作選』 第二卷, 上海人民出版社, 1993, p. 391.

28) 唐純良, 前揭書, p. 37.

29) 張磊·張蕪, 『民主革命的先行者孫中山』, 廣東人民出版社, 2005, p. 91.

까지 손문은 각 지역을 시찰하면서 모두 58차례에 걸쳐 연설을 행했는데 그 중 33번의 연설에서 그의 민생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平均地權’과 ‘社會革命’을 제창하였다. 아울러 인민대중의 생활이 개선되어야 함을 희망하지만 소수인들이 그들의 세력을 증식시켜 재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성공하였을 때도 손문은 새로운 소비에트 정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후에 손문은 다소 진일보하여 그의 民生主義는 바로 공산주의이며 또한 사회주의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는 한 연설에서 “공산주의가 이미 민생주의의 좋은 친구가 된 이상 국민당 당원들이 왜 공산당원들을 반대 하겠는가”라고 하기도 하였다.<sup>30)</sup>레닌도 일찍이 손문의 사상을 높이 평가하여 말하기를 “손문의 강령은 매 일행 일행이 모두 전투적이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방하고 있다”, “강령은 직접적으로 대중의 생활과 군중의 투쟁문제를 제기하며, 비착취 노동자를 동정하고 그들의 정의와 역량을 믿고 있다”, “그들(국민당)은 주관상 사회주의자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중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데 손문은 국민당의 영수로서 그 주류는 반공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기의 손문의 사상은 이후에 바뀌게 되지만 당시에 그는 한편으로는 이제 막 성립되어 미약한 중국 공산당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 그 기치를 세우게 되면 우리 당과 힘을 겨루게 될 것이다”<sup>31)</sup>고 염려하였다. 손문은 이처럼 정치사상 면에 어느 정도는 중국공산당에 대해 경시하면서도 경계를 하였지만, 모든 일체의 혁명역량을 국민당에 집결시켜야 된다는 애초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다. 당시 손문은 공산당과 黨 外의 평등한 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지만 공산당원들이 국민당 안으로 들어오는 黨內合作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그리고 당내합작의 조건으로 공산당원들이 공산주의 신념을 저버리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공산당 조직의 와해도 요구하지 않았다. 손문은 中共 二大 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표방하였었다.

## (2) 코민테른과의 관계

중국공산당은 그 출발점이 코민테른의 1개의 지부 성립되었고, 당시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코민테른의 국민당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도사상은 분명 연합적인 것이었지 결코 배척하거나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코민테른은 중국 공산당이 성립되기 1년 전 개최한 제2차 대표대회에서 이미 ‘민족과 식민지문제 대한 결의’를 통과시켜 피압박민족 국가의 자산계급과의 통일전선을 통한 민주해방운동의 방침을 확립시켜 놓았다.

한편 코민테른은 중국에서 ‘민족과 식민지문제에 대한 결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1921년 여름 코민테른 민족식민지위원회 서기 마링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비록 中共 一大에서 코민테른의 통일전선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고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中共 一大 폐막 후 마링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우리는 무산계급정당으로서 현재

30) 『孫中山全集』 上卷, 中華書局香港分局, 香港, 1974, p. 797.

31)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編, 「孫中山對鄧澤如等人1923年11月29日信的批語」, 『中共黨史參考資料』 3冊, 1979年, p. 321.

의 임무는 지금 바로 정치무대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진독수는 광주에서의 공직을 버리고 돌아와 국공합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야만 될 것이다”<sup>32)</sup>고 말하였다. 이즈음 마링은 상해에서 손문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張繼와 만나 쌍방의 국공합작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中共 一大 폐막 1개월 후 진독수는 상해로 돌아왔고 마링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제기한 것이 바로 “국민당과의 연합하여 중국공산당도 정치무대에서 투쟁”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마링은 陳獨秀와의 목계 하에 손문과의 협상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마링은 陳獨秀의 소개장을 가지고 張太雷를 대동하여 광주의 陳炯明을 만나러 가던 중 계림에서 손문을 만나 소련과 중국의 합작 및 국공합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마링은 코민테른과 소련의 건의 사항은 물론 중국 공산당의 제의도 함께 가져갔었다.

마링이 소련으로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아 코민테른과 소련의 대표로 달링이 파견되었으며, 달링도 코민테른과 소련의 명령을 받아 손문 및 국민당의 지도부와 마링이 협상하였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다. 1922년 초 국공양당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지역 공산당과 민족주의단체대표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레닌은 이들 대표들을 직접 만나 자신은 국공양당이 합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모두가 中共 一大 전후 시기의 시대 상황으로 코민테른의 지도 이념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지도부의 정치성향

中國共產黨의 지도부 인사들도 一大를 전후한 시기에 國民黨에 대해 합작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배척하거나 대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중국공산당 창건 초기의 많은 공산당원들은 모두 辛亥革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로서 어떤 인사들은 옛날 同盟會의 회원들<sup>33)</sup>로서 국민당과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하였던 것은 국민당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경험과 시대상황으로 보건데 국민당의 舊民主主義 혁명노선보다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를 선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종 孫文의 革命 民主主義의 입장과 투쟁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sup>34)</sup>

한편 군벌 진형명과 관계 측면에서 양당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손문과 진독수는 초기 그에 대한 평가와 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진독수의 경우 상해공산주의 소조를 형성한 후 국민당 광동정부의 지도자인 진형명의 초청으로 광동성 정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진독수는 광주로 옮긴지 얼마 후 발표한 문장에서

“나의 마음에는 광동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되어 있다. 나는 또한 廣東軍人(陳炯明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들이 중국 군대의 새로운 기원을 이룰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sup>35)</sup>

라며 진형명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었다. 진독수는 광동에서 교육사업과 신문화 및 신사상

32) 包惠僧,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的幾個問題」,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 p. 377.

33) 陳獨秀, 李大釗, 董必武, 譚平山, 林伯渠, 吳玉章 등이 포함되어 있다.

34) 唐純良, 前揭論文, p. 36(516).

35) 陳獨秀, 「歡迎新軍人」, (『廣東群報』1921年1月1日), 『陳獨秀著作選』第二卷, p.228.

선전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공산당 광동소조를 조직하였다.

당시 진형명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하여 공산당원이었던 진독수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청하여 광주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을 허락하는 한편 담평산과 진공박을 도와 『廣東群報』를 창간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공개적으로 선전토록 하였던 것이다. 진독수도 광주에서 신사상을 선전하고 구교육 제도를 개혁하면서 당지의 수구세력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진형명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sup>36)</sup>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공산당 조직과 사회주의 청년단은 광주에서 중국노동조합서기부 광동지부, 靑年劇社, 勞動通訊社, 講演隊, 俄語學校, 宣傳員講習所를 조직하고, 잡지 『靑年週刊』, 『勞動與婦女』 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광동성내와 광주시내에 34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17차례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담평산의 글을 보면 “광동에서의 선전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우리는 광동에서는 (모든 활동이) 공개적이었다”<sup>37)</sup>고 술회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1922년 6월(즉 중국공산당 二大 前) 진형명의 손문에 대한 반당 사건이 있기 전 까지 廣東지역에서의 진형명과 의 관계 측면만을 두고 본다면 국공합작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 2. 국공합작에 앞서 몇 가지 협력 사례

中共 二大 전까지 국공양당은 몇 가지 중요 활동 중 긴밀하게 서로 협력한 사례가 있었다.

### (1) ‘극동각국 공산당과 민족혁명 대표대회’ 참가

먼저, 양당은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각국 공산당과 민족혁명단체대표 대회’에 같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1922년 1월에 개최되었으나 그 준비 작업은 中共 一大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1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는데, 국민당 대표가 이 회의에 참가하였던 것은 공산당에서 연락을 취하여 이루어졌다. 손문은 마링과 회담 시 ‘제일 훌륭한 당원 동지 한사람을 (회의에) 참가시키겠다’고 응답하였고<sup>38)</sup> 張秋白이 국민당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玉樂平 등과 같은 몇몇 국민당 당원들도 공산당의 다른 지방 조직과 연계되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회의에서 양당의 참석자들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sup>39)</sup>

장추백은 공산당 대표들과 같이 레닌을 만났는데, 장은 여기에서 레닌의 중국 국공합작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공양당은 분명 매우 훌륭한 합작을 이루어 낼 것이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공산당 대표 장국도는 “양당 합작과정에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는데 이 한마디는 장추백으로 하여금 ‘국민당에 대한 불신임’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장국도는 오해를 풀기 위해 설득을 하여야만 했다고 알려졌다.<sup>40)</sup>

36) 『廣東群報』 1921년 8월, 『黨史研究資料』(4) 四川人民出版社, p. 325참조.

37) 譚平山, 「致國昌先生」,

38) 「馬林給共產國際的報告」, 1922年 7月 11日,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 p.11.

39) 唐純良, 前揭書, p. 38.

## (2) 홍콩선원 대파업

다음은 노동운동의 참가로서 양당은 특히 홍콩 선원 대파업 시 같이 참석하여 파업을 성공시켰다. 홍콩 선원대파업은 중국공산당 성립 후, 중국의 노동운동을 처음으로 고조시켰던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던 노동조합서기부와 각지의 분국은 대대적인 공작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홍콩 선원파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었다. 홍콩 선원공업연합회는 국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국민당 광주 정부로부터 유력한 지지를 받으며 파업을 이끌어 갔다. 파업기간 동안 광동정부는 매일 선원노조에 수 천원을 지원하였으며, 沙田慘案 발생 후 국민당 광동정부는 항의서를 발표하였고 후에 홍콩 영국 정부와 담판 시 정부 관원을 파견하여 회담을 돕기도 하였다. 이처럼 광동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sup>41)</sup> 홍콩 선원 파업 시 內地의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湖北·開封·長辛店 남부 각처의 철도노동자 및 기타 업종의 노동자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홍콩 노동자 파업 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북방 각지의 철도노동자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었으며, 또한 각지의 노동자들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후원금과 성원을 보냈다. 이것은 막 성립된 중국공산당 조직과 노동조합서기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국공양당 초기의 목계의 합작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 (3) 제1차 전국노동자 대표대회

세 번째 협력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제1차 전국노동자대회’이다. 이 대회는 본래 공산당이 노동조합 서기부를 통해 개최하려던 것이었는데 노동조합서기부의 기초가 비교적 잘 조직된 상해나 북방 각 지역은 모두 군벌들의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국민당 광동정부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회전 광동정부의 동의를 얻어 광주에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었다. 중공 중앙국 서기 진독수와 장국도는 직접 광주로 내려가 회의준비를 점검하고 회의에도 참가하였다. 노동대회가 있기 전날 중공 중앙은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국공합작을 위한 연합전선 수립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결과 일단은 일치된 견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더불어 노동자대회의 지도 방침도 수립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노동조합의 대표들의 성향은 매우 복잡하였는데, 즉 국민당계의 노동조합대표,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대표, 무정부주의 조직의 노동자대표 및 정객과 부랑자 조합대표들도 참가하였다. 대회는 전국 노동조합 서기부 대표 장국도의 주도로 개막되어, 주석단의 결성에 난항을 겪은 후<sup>42)</sup> 중국 노동조합서기부 광동 분국 대표 譚平山을 주석으로 뽑은 후 전체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회의에서는 적지 않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國共 兩黨 계열 대표들<sup>43)</sup>의 협상과 협력에 의해 비로

40) 張國燾, 「我的回憶」, 第1冊, 東方出版社, 1994. p. 200.

41) 譚平山, 「港政府槍斃華工」, 『廣東群報』1922年 2月 16日,

42) 중국 공산당은 당초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국민당원 黃煥庭·林偉民·謝伯英과 공산당원 譚平山·鄧培 등 다섯사람을 주석단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당 당원 謝伯英이 무정부주의 계열의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맹렬한 공격받게 되었다. 그는 사백영과 같은 시시한 정객은 회의를 멋대로 진행하게되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주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국민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였던 광주와 홍콩 양 지역 대표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打倒 帝國主義”, “打倒 軍閥”, “中國共產黨 萬歲”의 3대 구호에 각과 모두의 이견 없었다. 회의 상에서 논쟁 여지가 없었던 이유는 공산당 대표가 제의하면 국민당 대표가 동의하는 식으로 의견을 통일시켜 나가는 식으로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다. 이 회의를 통해 모두 10개의 의제가 통과되었는데 모두 노동자 계급의 단결 투쟁과 반제 반봉건의 기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회에서는 전국 노동자 總工會가 성립되기 전까지 勞動組合 書記部를 전국 공회의 연락 기관으로 하기로 통과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전국 노동운동을 총지휘하는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中共 二大 전 이루어 졌던 국공 양당 간의 확실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들은 모두 中共 二大에서 제출한 ‘민주연합전선에 대한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의 사정으로서 만약 이 기간 동안 국공양당이 대립과 배척의 관계였다면 이러한 양호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 3. 陳炯明 변절에 대한 대응

中共 二大 전 국공양당은 진형명 변절 반란 문제에 대응하여 일치된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이 사건은 이후 양당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였다. 진형명은 일찍이 손문의 유력한 부하 중의 한사람으로서, 그는 광동 성정부와 광동군을 장악하고 손문의 양광지역에서의 믿을 수 있는 기반이었으며 이후 북벌을 위한 주요 역량이였다. 뿐만 아니라 진형명은 최초로 국민당을 대표하여 소련대표와 중공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는데 진형명의 이러한 행동은 손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긍정적 작용도 한 것 같다.<sup>43)</sup>

그러나 이후 진형명은 손문과 북벌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 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순은 날로 커져갔으며, 중국공산당도 이들 양자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한쪽을 결정하여야만 하였다. 실력과 광동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진형명의 지위가 훨씬 강하였으며 손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최초 진형명과 손문사이의 모순이 격화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국민당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진·손 양쪽 모두와 관계 면에서나 협력 면에서 큰 모순으로 작용하는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손문을 국민당의 대표이자 당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적으로는 손문을 지지하여야만 했다. 1922년 6월 진형명이 손문을 공개적으로 배반한 후 제국주의와 북양군벌에 의탁하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즉시 혁명과 반혁명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국민당에 대해서도 진형명의 행동에 반대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진형명과의 모든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국민당과 한 목소리로 陳炯明을 성토하였다.<sup>45)</sup>

43) 대다수의 대표들로 가장 많은 숫자가 참가하였음.

44)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진형명과의 접촉을 손문의 국민당과의 합작관계로서 인식하였지 진형명 개인과의 관계로서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중국 공산당은 손문의 이러한 좌절로 인해 국민당과의 합작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않았고, 오히려 손문으로 하여금 각 혁명세력과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연합적으로 혁명투쟁을 위한 연합행동 문제를 토의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중공중앙국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진형명을 여전히 지지하였던 공산당원들을 엄중하게 처리하였는데, 먼저 譚平山을 중공 광둥성 조직책임자에서 면직 시키고, 陳公博은 경고처분을 그리고 譚植棠은 제명처분을 시켰다. 이것은 정치상, 사회여론 상 곤경에 처해있던 손문을 지지하고자 처리된 사항이었으며, 손문이 다시 광둥 정부로 돌아왔을 때 陳獨秀는 손문 정부의 선전주임을 맡아 손문이 인심을 수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것은 국공양당 관계사 상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는 이후 진행되는 공식적 국공합작에 어떠한 형식과 의미로든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 中共 ‘一大 決意’ 의 문제점

그러면 中共 一大의 決意에 나타난 ‘기타 정당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이것은 당시의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서 보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공산당이 성립될 당시 정치 이론이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서, 당시 공산당원들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도 계통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혁명의 실천적 결합을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中共 一大의 대표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중국 최초로 소비에트 정권과 같은 ‘무산계급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이 당이 가지는 제일 큰 과제는 무정부주의자들과 같은 기존의 여러 정치세력 및 정당과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中共 一大에서 발표된 두 개의 문헌은 당시의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정황이 잘 반영되어 있던 것이다.<sup>45)</sup>

둘째, 이러한 결의는 당시 中共 一大에 참가한 일부 대표들의 의견으로서 전체 대표의 의견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결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은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一大 회의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 회의 상에서 기타 정당에 대한 태도 문제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인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실제상으로는 무산계급은 반드시 기타 정당 및 정파와 투쟁을 영원히 진행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인사 ‘우리가 기타 정당과 행동을 같이하는 것은 우리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 상에 있어서 기타 정당과 더불어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되는 의견은 비록 소수였지만 코민테른대표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였다. 이에 대해 장국도는 “코민테른 대표 마링이 黨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마링이 출석하였을 때 다시 토론하자”<sup>47)</sup>는 의견을 전달

45) 陳獨秀, 「革命與反革命」, 『陳獨秀著作選』第二卷, p. 402~405 참조.

46) 何沁 主編, 『中國革命史參考資料』, 北京大學出版社, 1992, p. 95.

47) 關世雄 主編, 『中國共產黨統一戰線史』, 北京社會主義學院, 1994, p. 5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조계지 경찰들의 간섭으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급히 회의 장소를 浙江 嘉興南湖의 선상으로 옮겨 회의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여 마링은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하루 더 연장하여 간신히 두 가지 중요 문건을 토론하고 또한 중공 중앙위원을 선출하여야 하였으므로 시간이 매우 촉급하였으므로 결의 내용은 당연히 촉급하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 특히 지적할 점은 중국공산당 창당의 創始人이라고 할 수 있는 ‘南陳北李’ 즉 陳獨秀와 李大釗가 一大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불참은 회의에서의 토론의 수준을 적절하게 이끌어 올릴 수가 없었음은 미루어 짐작이 되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독수는 이미 국민당의 지방 실력자들과 유효한 합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독수와 이대조 양인의 정치경험이나 마르크스의 수준으로 볼 때 당시 左의인 성향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劉仁靜, 張國燾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기타 정당과 당파와의 어떠한 관계를 불허한다’는 다소 유치한 의식은 진독수와 이대조와 같은 권위 있는 인물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면 결코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一大 후 진독수는 중공중앙의 서기로서 그리고 이대조는 북방지역 공산당의 주요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으나 그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당 一大의 결의 내용을 수행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당과 기타 여러 방면에서 합작을 모색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데 중공 一大의 결의 사항은 단지 紙面상에만 존재하는 것일뿐 중국 공산당의 실천적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이 시기에 국공 양당 사이를 언급할 때 전혀 아무런 모순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공산당 내에서 국민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발표된 자료들 중에서 이러한 비판을 문자화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주요 사업이나 관심은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하는데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발표된 글들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견 발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국공합작의 방침이 확립되고 잡지 『嚮導』 발간 이후 국민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글들의 내용도 국민당을 공격한다든지 배척한 것이 아니라 국민당의 정치노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당의 개조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었다.<sup>48)</sup>이것은 당시의 공산당원들의 원칙적인 입장이었고 국민당에서도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공합작에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공합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었고 합작(협력)의 형식이 문제였다. 즉 손문은 黨 대 黨으로 평등한 黨外合作을 반대하면서, “容共”하는 식의 黨內合作을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공산당원들 대다수는 당원으로 국민당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黨外合作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코민테른의 설득을 받아들여 黨內合作으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한편 국민당 右派들은 대혁명시기 시종일관 국공합작을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제1차 국공합작의 형성시기에 양당 사이의 최대 모순으로, 이러한 모순이 대립과 배척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48) 唐純良, 前掲書, p. 40.

## IV. 결 론

코민테른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나 세계 혁명의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소련의 지도하에 소련의 의도에 부합되게 활동할 것을 중국공산당에게 요구했다. 소련은 중국 대륙에서 실권이 강한 정부와의 접근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포위와 공격을 완화시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킬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실제상황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소련은 군벌들이든 국민당의 손문들이든 접촉을 시도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당시 대표적 계몽 군벌로 평가되어지던 陳炯明과 吳佩孚와의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이라기 보다는 혁명의 방해세력을 약화시켜 노농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임시조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진형명의 반당사건과 오패부의 2.7 참안과 같은 군벌들의 배신행위는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손문의 국민당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양당의 관계에 대해 대륙이나 대만 기왕의 입장은 개별적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 대립 또는 배척의 관계로서 해석되어짐으로써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간과되어 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국공합작까지의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지향하였던 혁명의 방향은 국민혁명의 완수라는 측면에서는 이론이 없으며, 실제 두 집단에 속한 인사들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본다면 성향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 후 이들 인사들의 혁명관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코민테른과의 관계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1개의 지부로서의 입장과 국민당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외세 협력세력으로서 인식되어 지는 차이는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코민테른과의 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중국공산당 초대 서기인 陳獨秀가 5.4 운동 이후 맑시즘으로 경도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즉 5.4운동 후 그의 맑시즘의 수용은 소련이나 코민테른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배신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시 중국공산당에 속한 대부분의 인사들 또한 거의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 중국공산당원들은 이후 전개되어 지는 코민테른에 대한 종속적 입장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은 중국공산당이 의도되었던 아니든 통일전선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中共 二大 전까지의 국공양당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中共 二大 前까지 一大의 '기타정당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체 당의 행동 지침도 수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떠한 역사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中共 二大 이전 국공양당은 이미 부분적인 합작을 한 바 있으며 합작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共 二大 이후 양당은 합작을 위한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제1차 국공합작을 이루어 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방침에 의한 국공합작의 체결은 결정적인 순간에 코민테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나 모든 일체의 과정이 코민테른의 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시의 중국의 사회 조건(半植民地 半封建의 상태)이 국공합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공양당은 이러한 필요성을 현실로 이루어 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당, 중국공산당, 코민테른이 북벌을 앞두고 선택한 제1차 국공합작 카드는 다음과 같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하겠는데, 먼저 국민당은 크게는 반군벌 세력을 결집하여 국민혁명의 완수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련의 원조라는 현실적 판단으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고, 중국공산당은 명분상으로는 국민당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도 견고하지 못한 정치적 기반의 확보 즉,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세력 확장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코민테른 즉 소련은 앞서 언급한 바 처럼 중국의 혁명을 지원하여 그들의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포위와 공격을 완화시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킬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 타당성 여부는 손문 사후 북벌의 완성 후 전개된 중국의 정치상황이 이를 증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孫中山全集』上·下卷, 中華書局香港分局, 香港, 1974.
- 『列寧選集』, 第31卷, 人民出版社, 北京, 1963.
- 『陳獨秀著作選』第二卷, 上海人民出版社, 北京, 1993
-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中國現代革命史資料叢刊), 人民出版社, 北京, 1984.
- 向青·石志夫·劉德喜 主編, 『蘇聯與中國革命』, 中央編譯出版社, 北京, 1994
- 張國燾, 『我的回憶』, 東方出版社, 北京, 1994.
- 關世雄 主編, 『中國共產黨統一戰線史』, 北京社會主義學院, 1994
- 張磊·張蘋, 『民主革命的先行者孫中山』, 廣東人民出版社, 2005.
- 宇野重昭, 김경화 譯, 『中國共產黨史』, 일월서각, 1984.
- 나현수, 「第1次 國共合作과 北伐」, 『講座 中國史Ⅷ』, 지식산업사, 1997.
- 蔡熙駿, 「코민테른과 創黨大會문헌」, 『共產圈研究』128號(1989년 10월호)
- 蕭姓·姜華宣, 「第一次國共合作統一戰線的形成」, 『中共黨史研究論文集』上冊. (原載『歷史研究』1981年 二期)
- 吳英銚, 吳佩孚與蘇聯·中共及孫中山的關係, 『國外中共黨史中國革命史研究譯文集』(第1集), 中共黨史出版社, 北京, 1990.
- 伊羅生(H. R. Isaacs), 「與斯內夫利特談話記錄」, 『馬林在中國的有關資料』,(中國現代革命史資料叢刊), 人民出版社, 北京, 1980.
- 包惠僧,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的幾個問題」,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
- 蔡和森, 「中國共產黨史的發展(提綱)」, 『蔡和森的十二編文章』, 人民出版社, 北京, 1980.
- 李 達, 中國共產黨的發起和第一次代表大會經過的回憶,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版.
- 唐純良, 論中共二大前的國共兩黨關係, 『中共黨史研究』第12期, 1989年 11月, 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編, 「孫中山對鄧澤如等人1923年11月29日信的批語」, 『中共黨史參考資料』3冊, 1979

# An Analysis of the '1st United Front KMT-CCP': focusing on the Fact of United Front among Political Powers

Lee, Jun-Tae<sup>49)</sup>

The realization of 'the 1st United Front KMT(Kuomintang)-CCP(Chinese Communist Party)' reflects practical interests of the two main parties, the KMT and the CCP, and their direct and indirect link with the COMINTERN, which brings a triangular relationship involving the Soviet Union in the formation of the United Front. Looking at the united front in the light of an "alliance for the common interests", as the conceptualizing of an "united front" generally entails, real inten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could be understood as following.

The KMT collaborated with the CCP as it needed the Soviet aid, though its rhetoric focused on the completion of people's revolution by uniting the anti-warlords force. The CCP's rhetoric shared that of the KMT, but aimed at securing its political base, which had not yet been consolidated, and expanding its force through facilitating the workers and farmers revolutionary movement for the cause of construction the Communist State. The COMINTERN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hand, intended to support the Chinese revolution to rally its ally force and to minimize the besiegement and attack of the capitalist world in order to buy time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instigate the World Revolution.

---

49)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